

강원도와 연해주의 농업협력 사례의 의의

강승호*

국문요약

본고는 지역의 초국경적 평화협력 사례로서 강원도 동해시 기업 ‘바리의 꿈’이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재정착 지원을 위한 대두농업 지원사업과 그것을 계기로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 협력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분석하였다. 협력 사례가 지닌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외교적 협력 없이 민간차원과 지방정부 혹은 기관 등의 약간의 협조만으로 협력 범위 및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협력 범위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 발생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의의는 동북아 신냉전 도래의 억제 내지 지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제어: 초국경 협력, 식량안보, 농업협력

I. 머리말

본고는 지역의 초국경적 협력(transborder cooperation) 사례와 그 의의를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강원도 동해시 ‘바리의 꿈’이라는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재정착 지원을 위한 대두농업 지원사업과

*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kang@gwnu.ac.kr

그것을 계기로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는 동해를 공유하는 환동해 지역으로서, 비핵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우회하여 해양으로도 지역간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리적 인접성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서 출발한 초국경적 평화협력도 주변 국제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금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한국도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 및 경제제재에 동참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주변국 관계의 진전을 동시에 추구해온 우리에게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협력을 한반도 평화와 연계하여 추구해 왔다. 2절에서는 우리의 동북아 협력 정책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3절에서는 러시아 특히 극동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 아시아와 어떻게 연계되었고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역사와 현재적 의의를 검토하여 보겠다.

평화협력의 범위는 대체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협력 및 경제협력으로 크게 구분된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식량 농업은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지니기도 하지만, 인류 미래 생명과도 관련된 휴머니즘적 운동 선상에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적으로 자원과 식량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 각국의 경제안보, 식량안보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인 2월 초에 이미 “국제식량 가격 수준이 2011년 이집트, 리비아 민주화의 원인이 된 가격 수준에 도달(Ana, NYT, 2022.2.3.)”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가 집계하는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에 따르면 세계의 식량 가격은 이미 1990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세계은행은 식량 순수입국인 다수의 빈곤국이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라 경고했다. 강원도와 연해주 협력 사례는 우리의 식량안보와도 연관되어 해석되고 중요시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 분석과 그 의의를 정리하기에 앞서 4절에서는 세계 곡물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과 우리의 식량안보 대응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려고 한다.

5절에서는 연해주와 동해에서 생명농업 프로젝트를 실행한 법인의 현황, 프로젝트 확산에 도움이 된 양국 지방정부의 도움 등 사례의 현황과 향후

사업 비전에 대하여 소개한다. 마지막 6절에서는 사례의 의의를 도출하여 결론으로 갈음한다.

II. 한국의 동북아 협력

1. 한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 외교 정책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수립한 북방정책 이후,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주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와 협력이 매우 중요시되어 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동북아(경제)협력, 동아시아 경제통합,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유라시아까지 확장되어 논의해 왔다. 하지만 대체로 그동안 한국의 동북아협력 정책은 중국, 일본에 치중되었고, 중앙정부간 외교가 중심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활발했던 동북아 협력은 결국 경제적 중요도가 큰 중국, 일본과 2008년 한중일 정상회의¹⁾로 까지 발전하였으나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2020년 발발한 팬데믹으로 인해 2년 연속 무산되었다. 한중일 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현재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한·미·일 차관회의 공동기자회견을 거부하는 등 한·일 갈등의 폭과 강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에 일본이 적극 동조하면서 중·일 관계도 급랭하고 있어 당분간 한·중·일 협력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교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이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1) 한중일 3국은 2008년부터 3자 정상회담을 매년 연례화하며, 2009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 상설 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2011년 9일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이 대한민국 서울에 각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의 1/3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정상회의 외에도 한중일 외교, 통상, 교통물류, 문화, 보건, 환경, 스포츠장관회의 등이 정례화되어 있다.

취한 대북 독자제재 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되었다.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시행 당사자인 이명박 정부가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 조치’가 확대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²⁾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나진-하산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쪽 예술단의 만경봉호 이용 방남을 허용하였다. 민간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되었던 남북교류는 현재 핵실험에 대한 국제재제로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재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 전후로 북미정상회담(1차 2018.6.12. 싱가포르, 2차 2019.2.27. 베트남 하노이)을 중재할 정도로 남북협력의 지렛대가 될 외교에 활발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한중 양자관계도 2016년 사드사태 이후 종전과 같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비대칭적인 양극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신냉전의 대두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미동맹의 안보협력 속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가 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동북아에서 다자 협력 구상

지역평화를 위한 외교는 양자협력 방식보다는 EU와 같은 다자협력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윤상옥 외(2021, 28)는 유럽통합의 핵심 목표를 다음과 같은 서술을 근거로 유럽 대륙에서 전쟁 방지와 평화 구축이라고 말한다. 그 수단으로 경제 분야의 통합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개별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화된 국가 간 통합 모델로 여겨진다. 개별 주권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초국가기구’에 이양하는

2) 5·24 조치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역 사업 중단, 개성공단·금강산 이외의 북쪽 지역 방문 불허,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제훈 2020).

수준의 유럽국가간 협력은 단순한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통합(integration)을 의미한다. 이러한 쉽지 않은 방안이 택해진 이유는 국가간 갈등과 경쟁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윤성욱 외 2021, 27-28)

유럽통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우선하는 전략에 따른 결정임에도 통합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은 국가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갈등 해결에 가장 단순한 원리는 장 모네가 주장하였듯이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유럽통합의 기능주의 이론을 제시한 미트라니(D. Mitrany)는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동시장을 만들어 경제통합을 진행해 나가면 복지와 인권과 같은 문제에서도 협력이 공고화되며 궁극에는 정치적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윤성욱 외 2021, 143).

동북아 지역의 다자주의 협력은 아직 크게 실행에 옮겨지진 못했지만,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상된 경우도 많았다. 동북아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재, 중국의 대만문제, 한일관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탈냉전 이후 해체된 소련을 이어 받은 러시아는 최근 극동지역 개방과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유라시아 국가로서 한국에서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나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물류(철도), 에너지(가스 파이프 라인 연결) 등은 한때 제조업 강국이던 일본에 의해서 먼저 제기된 동북아 구상이다. 아시아 각국이 제조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를 아시아 역내로 바꾸는 원대한 구상이다. 물론 한국에게는 러시아를 육상으로 잇기 위해 북한을 거쳐야 하므로 북한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다.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는 북한에 영향력이나 신뢰가 있는 3자를 포함한 다자협력 방식에 관한 구상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즉 남북중 협력, 남북러 협력 구상이다. 2010년 이전에는 남북중 협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세계경제에 대한 개방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착수하여 1978년 개혁

· 개방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 영향력이 커졌다. 이 같은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한중협력을 남북중 3자 협력으로까지 발전시켜 한반도 협력과 평화의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지역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지역개발 계획에 맞추어 남북중 분업과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강승호 2005, 2008, 2009, 원동욱 외, 2013). 그러나 중국이 이미 아시아 나아가 세계 생산네트워크 중심이 되어 버린 2010년 이후 남북중 협력에서는 북한 내 일부 산업들이 이미 중국 중심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중 3자 협력에서 이미 우리의 역할이 중국으로 대체되어 개입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서 가공 후 완성품을 중국으로 가지고 나오는 대북출경 가공무역을 중국 지린성 훈춘시,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허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중간 협력 범위도 가전제품, 전자부품 조립, 수산물 가공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윤성욱 외 2021, 262)

따라서 한때 유력한 협력 방안이던 남북중 협력보다는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러시아를 통한 남북협력을 고려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러 협력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북한 청진을 포함한 북한의 동북 지역 산업집적화를 위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220km 떨어진 자루비노항과 남북러 항만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 초기 물류단지를 구축하여 수산물 가공업이나 러시아 임업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윤성욱 외 2021, 262-263).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러 프로젝트를 시도하려 했다. 성과는 없었지만, 팬데믹 시작 전 2020년 초 연해주(주로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한국 관광객이 거의 3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팬데믹 이후에는 양국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대했다. 특히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류는 기대만큼 활성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협력 측면에서 그 잠재적 가치는 누구나 인식해 왔다.

3. 한국의 동북아 외교 위기와 초국적 지역협력의 의의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동북아 지역 내 국가간 협력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는 각자 양자간 갈등이 줄어들기 힘든 상황이고 이 때문에 동북아 다자 평화외교로 발전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 상호 의존하는 경제관계가 한 순간에 파탄이 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일, 한중 양자 관계에서 경제협력이 평화협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힘들다. 중앙정부 차원의 동북아 외교는 서로가 경제위기로 가지 않을 정도를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각국 중앙정부가 처한 외교 상황은 한미일, 북중러 양 진영으로 구분되는 신냉전의 도래를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U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지역 평화의 적극적 수단으로서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 경제협력을 취할 동력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낼 것인가.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취약한 지역경제를 지닌 극동러시아에는 상호 갈등 동기보다 협력 동기가 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도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였지만 상호간에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2014년 상호비자면제협정과 같은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간협력과 지방정부 등의 초국경적 지역협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향후 더 필요한 상황이다.

Ⅲ. 한국에게 러시아의 위치

우리는 일반적으로 러시아가 일제 통치 이전 일본과 조선을 두고 각축하였고, 2차 대전 시기에는 조선의 남북분할을 획책하였으며 6.25 이후 북한의 후견인으로 행동하여 왔다는 인식이 강하다. 러시아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러시아가 어떻게 아시아, 그리고 한국과 연결되게 되었는지, 즉 을사조약 이전의 한국과 연관된 과거사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1. 러일전쟁, 을사조약 이전

러시아는 1884년 조선과 수교를 맺었으나, 러일전쟁 결과로 일본이 조선과 1905년 체결한 을사조약으로 조선과 단교되어 냉전시기를 거쳤다. 그러다가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러시아가 현재와 같이 한반도와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17km가 접하게 된 것은 1860년 베이징 조약 때문이었다.

이병한(2018)은 우리 대부분이 구한말 역사를 서구의 충격³⁾으로만 인식하는 사고에 만연해 있는데, 구한말 한반도 주변 4강이 정립되는 시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역사가 러시아가 아시아와 연결되는 시기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1860년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⁴⁾으로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되었다. 동구의 충격은 1차 아편전쟁으로 대변되는 서구의 충격에 못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만주 동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잃었고, 조선은 두만강을 경계로 두 개의 제국과 접하게 되었다. 동방정교를 믿고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동로마 제국 후신이 동북아의 일원이 된 것이다. 중국에서 뿐 아니라, 조선, 일본에게도 동구의 충격이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후 서둘러 홋카이도를 정복하였다.(이병한 2018)

해상교통을 장악한 대영제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대륙제국 러시아가 유리한 쪽은 육로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설하였다. 이에 블라디보스톡은 육상의 일대(一帶)와 해상의 일로(一路)가 만나는 곳 즉 19C 러시아판 일대일로(一帶一路) 거점이 되었다고 한다. 또 러시아와 아시아를 잇는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빗대어 동방의 보스포루스라 명하고, 동구 세력인 러시아가 흑해와 동해에 동시에

3) 1840년 청나라가 영국에 패한 1차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들이 동양 각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충격을 의미.

4)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1860년 10월 18일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체결한 조약. 이 조약에 따라 청국은 영국에 주룽(현재의 홍콩 중심부)을 내주었고, 영국은 청나라의 각종 이권을 빼앗아 갔으며, 프랑스는 청국 영토 내에서 프랑스인의 우월함을 인정받고 청국 영토내에서 천주교 전파 등 포교 활동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러시아에는 연해주를 넘겨주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만주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다.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고, 유럽사와 아시아사가 러시아를 통하여 연동하기 시작했고, 발칸반도와 크림반도의 운명이 요동반도와 한반도와 직결되게 되었다.(이병한 2018)

당시 유럽과 아시아가 러시아를 통해 연결되고, 러시아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세력을 확대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해자인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도 똑같이 위험하고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아야 할까.

과거부터 러시아가 유럽에서처럼 동아시아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지니려 하거나 지녔다는 동구의 충격은 조금 과도한 평가라 생각된다. 다만 조선인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한러관계를 있게 한 점에서 중요한 충격이 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구한말 이후 줄곧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한반도 분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러일전쟁에 관한 역사를 참조할 수 있다.

와다는 사실상 일제의 조선통치 시작의 기원은 1910년 한일합병이 아니라 일본의 승리로 끝난 러일전쟁⁵⁾ 후 을사조약(1905) 조약부터이며, 러일전쟁의 성격에 대해 ‘조선을 지배하고 정복하려 한’ 일본의 야망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러시아를 격파한 일본군은 대한제국에 침입해 진해만, 부산, 마산, 인천, 서울, 평양을 점령하고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사실상 보호국화를 강요하는 의정서에 조인하게 했다. 일본은 우선 조선을 자국의 보호국으로 삼은 뒤 러시아가 그것을 인정하도록 했다. 러일전쟁의 가장 큰 목적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말살하고 조선 전역을 식민지배하는 것이었다.(와다 하루키 2019, 1187)

러일 전쟁 기원 및 계기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청일전쟁

5) 이토 히로부미는 전쟁을 기획하고 승리한 직후 1905년 11월 서울로 들어가 고종과 대한제국 각료들을 위협해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조선총독부 전신인 통감부를 설치했다. 앞서 전쟁을 감지한 고종은 1903년 8월 전시 중립을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으나 허사였다. 당시 고종에 대한 여러 나라 외교관들의 평가는 극도로 나빴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부터 1919년 사망할 때까지 고종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간섭, 지배, 침략에 일관되게 저항했다.

(1894~1895)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만주로 진출하려 했다. 이는 당연히 러시아를 자극했고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 힘에 의해 일본의 간섭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길으로 내세웠던 것이 “만한교환론”이다. 만주와 조선을 각각 나눠 갖자는 것이다. 또 조선을 남북으로 분할해 일본과 러시아가 나눠가지자는 “남북분할방안”도 일본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속내는 “조선을 완전히 일본 것으로 하고 더불어 남만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일본의 것이고 일본이 보호국으로 삼는 것을 인정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다. 이것이 전쟁의 계기였고, 사실상 일본 외상 고무라 주타로(1855~1911)의 러일 교섭은 사실상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고 분석한다.

일본에서 시바 료타로 등은 러일전쟁을 서구와의 싸움에서 아시아가 거둔 최초의 승리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우익의 주장이다. 와다는 10년 간격을 두고 벌어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며, 청일전쟁을 ‘제1차 조선전쟁’, 러일전쟁을 ‘제2차 조선전쟁’으로 명명하며, “두 차례 조선전쟁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 비극의 출발점이며, 오늘날 일본의 뿌리”라면서 “분명한 전쟁범죄이며 일본은 이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면적의 80%(남한 면적의 1.64배)에 이르는 연해주는 1840년 베이징 조약이후 한반도와는 두만강 하구 17km를 국경으로 접하게 되었다.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가 시작된 것도 1860년대이다. 러시아와 조선이 수교를 맺은 1884년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다. 가뭄과 가난으로부터 탈주한 변방의 함경도 사람들이 많았다. 본디 여진족의 후예들이 살던 곳, 함경도-연해주의 모피길, 해삼길이 작동했다. 대한제국 이후 연해주는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연해주는 한반도 고려인과 연을 맺고 농업이 시작되었다. 1864년 조선의 대기근을 피해 최초로 조선인 14가구가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 개척을 시작하여, 1세대 고려인 농업은 벼농사의 북방한계선을 향카 호수까지 끌어올렸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일제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만여 고려인들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소연방 전역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은 고본질⁶⁾ 농업으로 2세대 고려인 농업을

6) “고본”과 “질”의 합성어이다. 고본은 임대 의미로 가지며, 질은 활동을 뜻한다. 따

개척하였다.

2.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한국

1990년 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에 주로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부활한 지역민족주의의 핍박을 피하여 다시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그중에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하여 60여년 만에 다시 할아버지의 땅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이 4만 명에 이른다.⁷⁾ 소련 해체 이후 광대한 면적의 영토를 이어 받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 기조는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을 위해 인근국과 경제협력하고 동시에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1990년 러시아와 수교한 한국은 다방면의 교역과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나 한국 양자 모두 크게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극동러시아에서 한국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국토 면적의 40%가 넘지만 인구는 15%에 불과한 시베리아 동편의 극동 지역은 1억이 넘는 인구를 지닌 중국 동북3성과 접하여 중국 의존이 높아질 염려가 있어 중국 이외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소망하고 있다.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⁸⁾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 한국, 한반도 전략은 첫째, 비교우위에 기초한 경제협력 추구이다. 두 번째는 남북한 균형 접근이며, 셋째,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다. 안보

라서 고본질은 “토지를 임대하여 계절 농사를 짓는다.”라는 의미를 띤다. 고본질은 고려인들이 소련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토지가 비옥한 지역의 집단 농장이나 국유지에서 불법적인 임대 계약을 맺어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는 특수한 농업 생산 형태이다. 고본질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농업으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생겨났다.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출현했고,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면서 고본질은 임대와 판매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사라졌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okpedia.kr/>), 「고본질」 편).

- 7) 1937년 중앙아시아로 19만 여 명의 강제 이주된 고려인은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다. 1990년 소련 해체는 고려인들이 경제적 동기에 따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8) 러시아가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이후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하는 포럼이다. 주요 참석국은 러시아를 필두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이 있다. 북한은 1차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했었으나 2차 포럼에는 불참했다.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이 강하며, 특이한 점은 북한에 치우치지 않는 남북 균형접근을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잠재력이 큰 부분은 비교우위에 기초한 상호보완적 협력이므로, 한국은 자본과 기술력, 러시아는 에너지와 물류, 농업(토지) 등이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한국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정도의 비슷한 규모로 세계경제의 위상은 높지 않지만 에너지, 식량 등에서 러시아의 위치와 세계적 영향은 적지 않은 편이다. 한국, 일본, 중국과 교역이 많은 곳은 극동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전체의 교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극동 지역은 중국과의 안정적 교역으로 서부지역보다 영향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고 그 중심지역은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블라디보스톡무역관 2022).

IV. 세계 곡물시장과 러시아

식량은 신체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소와 열량 에너지(Cal)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료이다. 쌀, 밀 등의 탄수화물 등 당질은 열량이 높아 과거 선진국이나 현재 빈국들의 주식이며,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인해 때때로 수급이 불안정하다.

1. 구 소련권에 의존하는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

각국의 경제안보에서 아직도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의 곡물시장이 ‘얇은 시장(thin market)’이기 때문이다. 생산량에 대해 무역량이 15% 전후로 한정되어 있다. 즉 곡물 수출국의 국내 생산량 변동이 증폭되는 형태로 무역량 증감에 반영되는 것이다. 공급 원천이 얇기 때문에 수출량이 변동하기 쉽다.

세계의 곡물 무역량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20년 이상 2억 달러로 추이해 왔지만, 지금은 4억 달러로 두 배 늘었다. 7년 연속 폭작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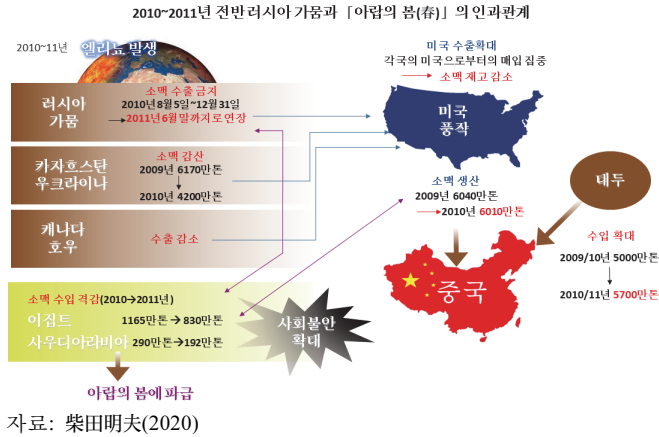
라 세계 곡물 무역량도 4억 2798만 톤과 4억 톤 대를 넘어 생산량에 대한 무역 비율도 16% 대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곡물 시장이 안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대변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구 소련권 등의 조방적이고 불안정한 지역에 세계 곡물시장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은 2000년대 초까지 4000만 톤 전후로 추이해 왔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인지 2018년에는 8500만 톤을 초과하여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미국의 5000만 톤을 능가하는 세계 유수의 밀 생산 대국이 되었다. 생산비용이 낮고 경쟁력이 있는 러시아산 밀은 지금 세계 최대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후 영향과 조방적인 면이 강해서 반드시 생산이나 수출이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빈곤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에게 쌀과 밀은 굶주림을 없애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절대 필수품이며, 부족해지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재’이다(이하 설명은 柴田明夫 2020을 참고).

2010년 8월, 엘니뇨 현상(적도 부근의 해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상태가 1년 정도 계속되는 기상 변동)에 휩쓸린 러시아에서는 당시 푸틴 총리가 “러시아의 생산은 문제없다”고 말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가뭄에 의해 밀 생산이 톱 떨어지지 않는 생산 상황을 판별할 때까지 수출을 중지한다”고 발언해 2011년 6월까지 수출을 멈췄다. 2009년 6190만 톤이었던 러시아 밀 생산량이 10년에는 4200만 톤까지 감소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수출도 감소했다. 이들은 주로 중동·북아프리카용이다. 이 결과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에서는 수입량이 1165만에서 830만까지 줄어들어 빵 가격이 상승하는 등 사회 불안이 퍼졌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운동 ‘재스민 혁명’은 SNS(교류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로 퍼져 ‘아랍의 봄’의 계기가 됐다. 문제는 이 지역에 그치지 않고 시카고 곡물 시장에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은 콩이나 옥수수 수입 확대를 서두르는 등 식량위기의 연쇄라는 사태가 일어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2.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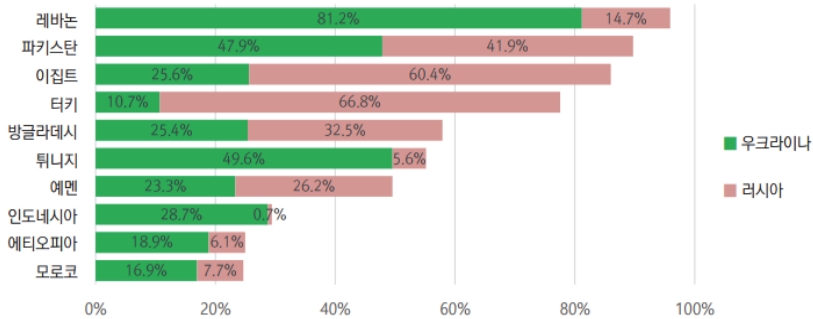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Breadbasket)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 해바라기유 수출 1위(세계 수출총액 중 39.5%), 옥수수 수출 4위(13.2%), 그리고 밀 수출 5위(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작물 재배지가 위협받는 데다가 해상무역로도 막히면서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요 식량 수출국이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도 심각한 수준의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또한 농업 상품의 핵심 생산국이자 순수출국이기에, 세계 식량 생산의 큰 축을 담당하는 두 국가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시장의 취약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특히 2020년 레바논이 수입한 밀의 81.2%, 그리고 튀니지가 수입한 밀의 49.6%가 우크라이나산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빈곤국들에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산 밀 순수입국 중에는 러시아산 의존도도 함께 높은 경우가 많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결부된 이번 전쟁으로 입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2020년 우크라이나/러시아산 밀 수입 의존도 상위 10개국의
양국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 Yevhen(2022)

3. 우리의 미래 식량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단이 변화하여 신체 근골을 형성하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육식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 학자들은 현재의 식단을 유지할 경우 지구는 2030년 단백질 위기(protein crisis)를 맞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가축의 사료를 공급할 경지와 수자원 등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되는 화학 기계 농업과 메탄 배출원이 되는 소와 같은 대가축 사업 등은 기후 위기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육식 대체 식품으로 세포배양육 기술이나 식물성 조직단백 기술 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2030년 기준으로는 콩 등 식물단백을 위주로 한 조직단백 상용화가 더 빠른 식량원이라고 전망되고 있다(강승호 2022 참조).

콩 자급률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콩 수입국으로서 수입 콩의 80%가 GMO 콩이다. GMO 콩은 대부분 대두유를 생산하는 대기업에 공급되고 소비된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은 콩기름 추출률을 높이기 위해 모두 유기용매를 사용한다. GMO 콩의 재배에 사용되는 맹독성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와 콩기름 추출에 사용되는 유기용매(노말헥산, n-Hexane)가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어 인구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곡물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GMO 콩은 용매를 사용한 기름 추출과 가축 사료용 대두박에는 이점이 있지만, 조직단백원으로서의 압착추출로 Non-GMO 콩에서 기름을 짠 대두박이 영양이나 안전성 면에서 훨씬 우위를 지닌다. 러시아는 정책상 GMO 재배와 유통을 금하고 있고, 극동러시아와 연해주에서 재배와 생산이 늘어나고 있어 콩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는 좋은 협력 대상이 된다.

V. 연해주와 강원도 협력 사례

‘바리의 꿈’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1999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사업이라는 인도적 활동에서 시작하여 2004년 농업 관련 사업화를 위한 현지법인이 만들어지고, 이후 2005년 한국 내에 법인이 만들어진 특별한 해외농업 사례이다. 16년을 거치면서 고려인과 한국인 지원가 중심의 사업법인 뿐 아니라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함께 연해주 농업에 대한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의 설명은 김현동(2022)과 바리의꿈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조하였다.

1. 연해주에서의 활동

1) 현지법인 설립 -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 프리코 농장, 이스턴모닝

1999년부터 시민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⁹⁾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1년 국내에 동북아평화연대(사)와 연해주 현지에 비영리법인인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이하 “기금”)을 설립하였다. 기금은 2004년부터 고려인 마을 만들기과 농업정착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려인 마을 자활을 위한 경제사업을 병행하였다. 경제사업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에 가공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유한회사 이스턴모닝(기금에서 100% 출자)을 설립하였다.

9) 1996년 창립되어 조선족 비자사기 피해사건을 계기로 한 재외동포활동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60주년을 맞아 고려인 동포 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2004년 미하일로프카 4개 마을과 스파스크 2개 마을의 200여 고려인 가구를 중심으로 제3세대 고려인 농업, 유기농업을 선언하여 주산물인 콩을 가지고 장류, 두부, 콩기름 등을 가공하고 2005년 한국 강원도 동해에 그 파트너로 (주)바리의 꿈을 설립하였다(김현동 2022, 275).

2013년 프림코 농장¹⁰⁾ 폐업 이후 ‘바리의 꿈’은 별도로 확보하여 둔 미하일로브카군 쏘얏센 지역의 100만평 부지를 활용하여 콩 위주의 유기농 농사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콩은 유기농 두유와 청국장, 메주 등의 가공에 사용하였고, 콩기름과 콩단백 등 가공에 필요한 물량은 한국에서 진출한 해외 농업기업 농장에서 확보하고 있다(김현동 2022, 276).

2016년부터 연해주 현지와 국내에 공히 압착가공 시설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콩기름과 콩단백을 주로 함께 생산하고 있다. 원료가 되는 현지 대두는 연해주 진출한 한국기업을 통해 획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연해주 농업과 우리 진출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2) 러시아 연해주 농업과 우리 진출 기업

러시아가 2001년 이후 밀의 순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농업 부문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두는 아직 가장 중요한 작물은 아니지만 극동지역의 아무르 주를 최대 산지로 하고 이어 연해주에서는 대두가 주요 작물이며, 수출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이하 내용은 강승호 2022 참고).

연해주 대두의 생산 현황을 보면 러시아 전체의 대두 생산(2019년 생산면적 270만ha, 생산량 440만톤)에 비하면 연해주 대두의 생산은 10% 미만이지만, 연해주 대두의 경우 옥수수와 더불어 생산 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 14.5만 톤에서 2020년 38만 톤으로 2.6배 증가하였다. 인근 중국 동북 3성으로의 수출 수요에 따른 확장이 주 요인이다. 연해주 대두의 판매가 과거에는 콩기름과 사료용 대두박으로 주로 내수에 사용되었는데, 점차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연해주 대두가 전량 Non-GMO 종자로 재배되

10) 기업이 2006년 한국 고합그룹이 설립 운영하다가 IMF 사태 이후 우리은행 관리로 넘어가 있던 프림코 농장의 고합그룹 지분을 인수하여 직접 농장경영을 시작하였으나, 수십 년 간 곳곳에 누적되어 숨겨져 있던 부채와 자연 유기농 판매의 성과 저조, 경영진의 러시아 입국 불허로 인해 2013년 농장경영을 청산하게 되었다(김현동 2022).

어 채유/사료용의 GMO보다 식가공용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연해주 콩의 한국 수출 증가는 사실상 한국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반입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과거 현대농장은 한국과 러시아 수교 이후 북방진출을 위해 연해주에 자리를 잡고 국내 아산농장에 적용할 대농장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겸 과거 국영농장을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2018년 이후 현대그룹의 자체조정 일환으로 현재는 롯데상사가 인수하여 2만ha 규모의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롯데상사는 옥수수와 대두를 경작하여 옥수수는 음료, 제과 등의 원료용으로 전량 한국으로 반입하고 있다. 서울사료의 경우 현지에서 낙농과 경작을 겸업하면서 사료와 식용을 위한 생산을 하는 등 한국계 진출기업들은 우수리스크 중심으로 5.5만ha경지에서 콩과 옥수수 등 곡물을 경작하고 있고, 연해주 전체로는 10만ha에 이른다.

한국 기업들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연해주로 재정착한 고려인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인해 19만명의 연해주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등과 같이 현재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여러 자치 공화국으로 분산되었으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현지의 민족차별 등에 따라 원래 거주지인 연해주로 재정착을 원하는 5만 명의 고려인들이 재이주하였다. 이들 중 일부인 ‘바리의 꿈’이 압착콩기름과 두부 등의 콩단백 가공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우리 진출 농업기업들은 대부분 우수리스크 지역에 집중되어 5.5만ha의 경지를 확보하고 있다. 대농장 경영의 경우 1만 헥터 당 200억 정도의 기계, 저장설비 등의 투자 소요되므로 약 1천억 원 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출 기업의 생산성은 아직은 국제적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하지만 현지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

고려인, 한국인 농업이 연해주에 정착하여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러시아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빠뜨릴 수 없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 인구안보 문제는 매우 절박하다. 연해주만 해도 2000년에 205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현재 195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를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가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억제하고 동쪽(연해주)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인

데, 조부모의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고려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이에 잘 부응하는 경우라 할 수 있었다.

동북아기금에서 추진한 ‘고려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2008년에는 우정마을과 고향마을이 속한 미하일로프카군이 연해주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군으로 선정되어 당시 동북아기금 회장이 상을 받았고, 고려인들의 마을 만들기과 자활 노력이 전국 방송에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김현동 2022, 283).

러시아 정부는 소련 해체 이후 몰락하던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 정책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연해주 재이주를 추진했다. 러시아에서 고려인은 ‘개척하는 민족’, ‘바위 위에서도 농사짓는 민족’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 고려인들의 연해주 재이주 초기에 연해주 정부는 ‘연해주고려인자활기금’이라는 단체에 다섯 군데의 농지와 군 막사를 불하하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농업 이주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려인의 연해주 농업 이주 정착을 돕는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은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환영받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연해주지역 대두 농업협력의 전략

연해주 농업 현황과 한국의 진출에 관해서는 성진근(2014), 이은수(2016)에 의해 이미 자세히 소개되었다. 연해주는 콩 생산에 적합한 대규모 농지 및 농장경영이 가능하여 옥수수, 콩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과다하게 GMO에 의존하는 우리 식량 원료원을 대체할 강점전략(SO, ST)을 추진할 수 있는 적격지이지만, 내수시장이 취약하여 결국 수출 및 국내 반입 강화 등 약점보완(WO, WT)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의 수출 쿼터 도입 및 규제라는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분쇄와 같은 1차 가공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가공설비와 가공단지 및 공동물류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 연해주 대두의 SWOT 및 전략

	강점(S)	약점(W)
	1. 대규모 농장(평균 3천~1만ha), - 곡물생산 2. 초지170만ha - 대규모 축산 3. N-GMO 종자 재배	1. 작물재배기간이 짧아, 파종~수확 시기 관리 중요 2. 점토층농지 수직배수불량 추가투자 필요 3. 물류인프라 취약 4. 내수시장 협소(연해주 200만명, 극동 800만)
기회(O)	SO전략	WO전략
1. 러시아 정부극동, 동방진출의지 -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2. 연해주정부: 농업발전 프로그램(축산보조금)	1. 절대부족 곡물 수입대체 2. 특히 과다한 GMO 수입 대체	1. 대농장 관리기술 교육 및 훈련 2. 수출 지원 방안 마련 - 국내반입TRQ 적극 활용
위협(T)	ST전략	WT전략
1. 법령 및 정책의 잦은 수정 2. 비효율적 행정절차 과도한 인허가 3. 2021년부터 수출관세 부과	1. 한러협력의 다층적 틀 활용 - 정부간 협력 틀 - 현지 한인, 고려인, 조선족네트워크	1. 공관 등에서 현지정보를 신속 파악 전달 2. 관세 회피를 위한 1차 공동가공장 구축 건설

출처: 강승호(2022)

극동 연해주 정부는 한국의 해외 농업기업과 고려인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연해주 미하일로프카군을 경제선도구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협작을 기대하고 있는 바, ‘바리의 꿈’은 이곳 200만평 부지에 한국기업과 연해주 농업이 협력하는 선도농가공단지를 양국의 협력사업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2. 국내에서의 협력 활동

1) 법인의 설립과 변화: 사회적기업 바리의꿈, 바리의꿈협동조합, 순콩사회적협동조합, 동북아시아식품협동조합

2005년 동해시에 설립된 ‘(주)바리의꿈’¹¹⁾은 2013년에는 바리의꿈협동조합

11) 2007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계기로 2008년에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및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고 있다(바리의꿈 홈페이지).

을 설립하였다. 이 조합에는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이로운물, 쿠키쇼핑, 우리밀 등이 참여하였고, 두부는 우리밀에서, 두유는 쿠키쇼핑에서, 그리고 콩국수는 해피브릿지에서 생산을 담당하였다. 2015년 유기농 인증 확대에 실패하면서 최소한의 두유 생산과 현지 장류 생산만 유기농업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유기농 기반 확대를 위한 과제는 숙제로 남겨 두고, 2016년부터 ‘바리의꿈’은 Non-GMO 콩 압착가공사업을 규모 있게 추진해 가고 있다(김현동 2022, 277).

먼저 장비와 기술, 인력 등의 준비를 위해 상대적으로 콩 압착가공산업의 규모가 크고 기술이 우수한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에는 동해사회적경제협의회와 ‘바리의꿈’ 주관으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강원도 지역의 교육과정 이수자와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수도권의 인사들이 모여 순콩사회적협동조합(발기 당시 명칭 동북아 Non-GMO 콩 압착가공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생산 공장의 운영 주체인 동북아식품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019년에 이 두 협동조합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김현동 2022, 277).

‘바리의 꿈’은 지난 16년간 공익적 사회적 경제와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투자 확대나 수익성 제고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수가 협업을 통해 각자의 지향을 실현하는 경영방식을 유지하여 왔다. 시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관련 기업 혹은 개인들과 협업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필요한 만큼 자본과 인력을 모아 목표를 실현하는 경영방식을 실천한 것이다.

2) 강원도 학교급식 등 국내 확대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급식조례가 속속 만들어져 초중고 학교가 판매처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3년 전부터 강원도 교육청에 의해 연해주 콩으로 만들어진 압착콩기름의 시범 급식이 영월군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4개 시·군(영월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식 물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2022년에는 강원도청의 참여로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3) 한국해외농업개발협회, 러시아 극동영농지원센터

한국해외농업개발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부족한 식량 등을 해외 개발하려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외 생산물 반입에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¹²⁾ 연해주 현지에서는 대농장 경영 애로 사항이나 현지 작물 재배 기술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극동영농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연해주를 통한 ‘바리의 꿈’ 목표와 비전

‘바리의 꿈’은 Non-GMO 콩의 압착가공 사업을 시급하게 벌여나가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삼고, 연해주 고려인 농업과 한국에서 진출한 해외농업 기업을 통하여 그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리의 꿈’은 생산뿐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집중하여 순콩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소비자운동 협동조합과 동북아식품협동조합이라는 생산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현재 그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리의꿈, 순콩사회적협동조합, 동북아식품협동조합, 러시아 현지 법인인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은 ‘바리의 꿈’이 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이다(이하는 김현동 2022, 271~273).

1) 단기:

현재 동북아식품협동조합과 러시아 현지법인인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은 강원도 동해시와 러시아 연해주에서 각각 콩 1,000톤/년 규모의 압착가공시설을 구축하고 HACCP 인증을 추진하였다. GMO 농산물과 유기용매 가공방법에 대한 대안 찾기가 시급한 문제라면,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와 안전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의 수요 증가는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Non-GMO 콩의 압착가공 산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형 생명평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12) 국내 실수요자와 해외농업개발 사업자가 확보한 곡물 구매시 저율관세로 국내반입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중장기: 연해주 남북러 생명농업가공단지 구축을 통해 안전한 대두 원료 및 식품공급

‘바리의 꿈’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러시아의 Non-GMO 농업정책과 함께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이 연해주에 정착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연해주 해외농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정착에 성공했다. 지난 10여 년 간 약 10만 ha의 토지를 확보하였고, 현재 매년 3만 톤의 콩과 4만여 톤의 옥수수와 밀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약 1만여 톤의 Non-GMO 콩을 국내에 반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수요 여하에 따라 앞으로 3년 정도면 10만 톤의 규모로 콩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 한국의 해외영농이 연해주를 넘어 아무르주까지 확장되고 남·북·러 협력 농업이 실현되면 100만 톤의 Non-GMO 콩 생산도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한다.

러시아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중국이 콩의 블랙홀이 되어 러시아 내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력이 커지자 수출세를 부가하며 자국 Non-GMO 콩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해외 농업기업과 고려인 마을이 집중되어 있는 미하일로프카군에 200만평 부지의 선도농가공단지를 조성하며 농산물의 가공 수출을 지향하고 있다. 가공단지를 양국의 협력사업 형태로 진행하여 ‘미래 안전 먹거리의 공급처로 만들어 갈 선도적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연해주와 강원도 협력의 의의

이하에서는 2절 이하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후에 연해주 강원도 협력 사례의 의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동북아협력 정책이 중국, 일본에 치중되어 왔고 중앙정부간 외교가 중심이 되어 왔지만, 현재는 동북아 한일, 한중 양자 협력에 한계가 있고 향후 동북아 다자협력도 원만하기 힘든 외교적 위기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민간협력과 지방정부 등의 초국적 협력 동력을 만들어 내

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의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는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극동과 연해주가 1860년 이후 한반도와 접경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기 시작하였음을 살폈다. 러시아는 영토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울러 보유한 국가로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적대관계가 전역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주로 연계되는 지역은 극동러시아와 연해주 등으로 우리의 동북아 지역협력, 지역의 초국경적 협력의 대상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려인과 러시아 농업은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하면서 다시 고려인과 만나게 되고, 한국에 부족한 농업식량 부분을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을 확인하였다. 연해주 지역과 강원도 지역이 민간 네트워크만으로도 초국경 협력을 할 수 있는 축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절에서는 식량원료 가격 상승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 식량안보 위협을 만들어 냄을 언급했다. 소득 수준이 낮아 앵겔계수가 높은 빈국들의 경우 식량가 급등은 정치권의 위기를 낳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곡 자급률은 높지만, 향후 미래 단백질 수급과 관련한 식량위기에는 예외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단백질원으로서 대두의 확보가 필요한데 연해주와 농업협력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5절에서는 먼저 러시아 연해주에서 1999년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의 인도적 활동에서 시작하여 2004년 사업화를 위한 현지법인이 만들어지고, 이후 2005년 한국 내에 법인이 만들어진 특별한 해외농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16년을 거치면서 고려인과 한국인 지원가 중심의 사업법인 뿐 아니라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함께 한국의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연해주 농업 가공기지를 통해 나아가 북한의 식량 공급까지 고려하는 생명평화 사업의 과정을 소개하였다.

‘바리의 꿈’을 통해 본 연해주 강원도 협력 사례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외교적 협력어 없이 민간차원과 지방정부 혹은 기관 등의 약간의 협조만으로 협력 범위 및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 지원(고려인의 연해주 정착지원)에서 경제사업으로 발전시킨 점, 발전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들을 개인이나 개별이 아닌 협동조합적 법인형태로 발전시킨 점, 연해주 정부의 인정과 암묵적 후원 그

리고 한국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낸 점 등에서 잘 파악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협력 범위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농업에서 제조가공 등으로 대두에서 기타작물(옥수수 등) 등 다른 범위로 전이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협력 분야가 한국의 이익(부족한 대두의 수입수요)과 연해주 지역의 이익(농업의 수출화, 가공화)과 맞물려 있는 공동이익 분야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의의는 향후 미래에 관한 것인데, 동북아 신냉전 도래의 억제 내지 지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러 양국 관계와 동북아지역에서의 의의이다. 현재 강원도 기업과 연해주 일부 사이의 협력인 지역간 초국경 협력의 부족 문제를 광역정부간 협력이나 중앙정부의 협력이 보완한다면 양국 관계나 동북아 신냉전 도래의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승호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다. 중국경제, 경제체제 및 개발경제학, 지적재산권 등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의 기술경쟁(과학기술, 식량안보-종자)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 『환동해 경제론』(공저, 2021, 두남)

참고문헌

- 강승호. 2005.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한중협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1(1): 191-220.
- 강승호. 2008. 『남·북·중 산업협력에 있어서 인천의 역할』.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강승호. 2009.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이장규 외.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 전략 연구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35-746.
- 강승호. 2022. “연해주 콩, 새로운 도전.” 『계간 농정연구』 80호, 247-268.
- 김현동. 2022. “‘바리의꿈’의 꿈.” 『계간 농정연구』 80호, 269-288.
- ‘바리의 꿈’ 홈페이지. <https://www.baridream.co.kr/shop/main/index.php>(최종검색일: 022/8/3).
-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2022. “2021년 러시아 극동연방구 교역동향 및 2022년 전망.”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5월 9일).
- 성진근. 2014. “러시아 연해주 농업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 『세계농업』 162, 1-19.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www.okpedia.kr/>
- 와다 하루키(이웅현 역). 2019.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서울: 한길사.
- 원동욱·강승호·이흥규·김창도. 2013.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성욱·안병익·김유정. 2021. 『EU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다-유럽통합 사례로 본 한반도 경제통합의 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이병한. 2018. “블라디보스토크의 뜻, 동방을 지배하라!” 『프레시안』(2월 4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5018>(최종검색일: 2022/8/3).
- 이은수. 2016. “러시아 연해주 해외농업자원개발 현황.” 『세계농업과 물』 57호, 58-74.
- 이제훈. 2020. “통일부 ‘5·24조치 실효성 상실, 남북 교류협력 장애 아냐.’ ” 『한겨레신문』(5월 20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5746.html>
- Ana Swanson. 2022. “Food Prices Approach Record Highs, Threatening the

World's Poorest.” 『The New York Times』(2월 3일). <https://www.nytimes.com/2022/02/03/business/economy/food-prices-inflation-world.html>(최종검색일: 2022/8/3).

Yevhen Anhel.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The War in Ukraine and Implications for Global Food Security).” 『EMERiCs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柴田明夫. 2020. “世界同時多発食料危機が自給率4割の日本を襲う.” 『週刊エコノミスト』(4월 25일) <https://weekly-economist.mainichi.jp/articles/20200424/se1/00m/020/006000d>(최종검색일: 2022/8/3).

Abstract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Gangwon-do and Primorsky Krai

Kang, Seung-Ho*

This paper introduces regional examples of transboundary peace cooperation and summarizes the implications. ‘Bari’s Dream’, a company in Donghae-si, supported the soybean farming business for the resettlement of Goryeoin in Primorsky Krai, Russia. With that as an opportunity, cooperation between Gangwon-do and the Russian Primorsky Territory expanded. The significance of cooperation case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cope and methods of cooperation are being diversified with little cooper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s or institutions without diplomatic coope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far. Seco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spillover effect in the scope of cooperation. Third, it will be able to provide a clue to suppress or delay the advent of the new Cold War in Northeast Asia.

Key Words: Transborder cooperation, food security, agricultural cooperation

논문투고일: 2022. 8. 8.

논문심사일: 2022. 8. 9.

게재확정일: 2022. 8. 16.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Area Studies, G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gwnu.ac.kr